

UAE 방산 자립과 차세대 방공 전략

날짜 : 2025년 7월 3일	무역관명 : 두바이	작성자 : 이지수 대리	
		TEL : +971)4-450-4360	EMAIL : jslee@kotra.or.kr

□ 걸프 안보 환경 변화와 UAE의 전략적 대응

- 걸프 지역은 세계 에너지 수송로이자 전략적 군사 거점으로,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된 지정학적 요충지임. 2025년 6월 발생한 이란-이스라엘 전쟁은 역내 불안을 심화시키며, UAE 등 걸프 국가들로 하여금 자주방위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UAE는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이란과도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다층적 외교·군사 전략을 추진 중임. 이와 함께 방산 자립화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국산 기술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UAE 방산 자립화 동향

- UAE 국영 방산기업 EDGE의 CEO 하마드 알 마라르(Hamad Al Marar)는 “걸프전이 자국 방산 산업의 출발점이었으며, 물리적 무기보다 전략과 준비 태세가 안전을 결정짓는 요소이며, 억제력이 최고의 방어 전략”이라고 강조함.
- 현재 EDGE는 35개 이상의 계열사와 220종 이상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UAE 내에서 제조됨. 아부다비에는 약 170개의 제조 및 조립 시설이 가동 중임.
- UAE는 산업기술부(MoIAT)의 ‘Make it in the Emirates’ 및 ‘Operation 300bn’ 전략을 통해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 제조 기반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 중임.
- 아울러 Tawazun 오프셋 제도를 통해 무기 조달 시 일정 비율을 현지 생산 또는 기술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UAE의 방공 전략 ①: 통합 방공망 구축

- UAE는 드론, 탄도미사일 등 복합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층 통합 방공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음. 기존 미국산 THAAD와 패트리엇 PAC-3 시스템에 더해, 자국 기술 기반의 조기경보 및 감시 역량도 함께 강화하고 있음.
- 2024년 5월 사우디에서 열린 미국-걸프협력회의(GCC)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걸프 지역 통합 방공망 구축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UAE는 이에 대한 센서 및 요격 능력 향상 방안을 제안함.
- 2025년 5월에는 한국산 M-SAM-II(천궁II)를 중동 최초로 도입해 다층 방어 전략을 한층 강화함. 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 등 다양한 공중 위협에 대응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기존 방공 체계와 통합 운용이 가능함.
-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이스라엘과 방산 기술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21년부터 IDEX(아부다비 국제 방산 전시회)에 이스라엘 방산 기업들이 본격 참여해 아이언 돔, 스파이크 미사일, 사이버보안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UAE의 방공 전략 ②: 레이저 무기 도입 관심 확대

- UAE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무기체제로 주목받는 이스라엘의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 시스템 '아이언 빔(iron Beam)' 도입에 관심을 표명함. 이 시스템은 소형 드론이나 박격포탄 등 탐지가 어려운 저고도 위협에 효과적이며, 기존 요격 미사일 대비 운용 비용이 현저히 낮아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아이언 빔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통해 수 초 내에 목표물을 열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 Tactical Report에 따르면 UAE는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 Rafael과 초안 협정에 도달했으나, 일부 쟁점으로 최종 계약은 지연되고 있음. 해당 협정은 드론 및 미사일 방어 기술 공동 개발을 포함한 양국 간 전략 협력을 목적으로 함.

- UAE는 자국 내 레이저 무기 기술 확보에 적극적임. 아부다비 정부 산하 연구기관 TII(Technology Innovation Institute)는 DERC(Directed Energy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레이저 기술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IDEX와 NAVDEX 전시회에서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공개한 바 있음.
- EDGE 역시 레이저 무기 국산화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 중이며, 요격 정확도, 에너지 효율성, 기상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다층 방어 체계 내 통합 운용 가능성을 검토 중임.
- 향후 UAE는 레이저 무기와 기존 요격 미사일의 혼합 운용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방공 전략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복합 위협이 상존하는 중동 안보 환경에 적합한 대응 방식으로 평가됨.

□ 글로벌 협력과 방산 생태계 강화

- UAE는 자주적 방위 역량 확보를 위해 전략적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EDGE와 Tawazun을 중심으로 공동 R&D, 기술이전, 현지 생산 및 조립 확대를 통해 방산 산업의 내재화 수준을 높이고 있음.
- 프랑스 Thales, 스웨덴 Saab, 이스라엘 Rafael 등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는 방공, 레이더, 통신, 사이버보안, 해양 감시, AI 기반 추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오프셋 제도를 활용한 핵심 기술 이전도 활발히 추진 중임.
- 2025년 상반기, UAE 방산 내재화 전략과 관련한 주요 협력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 EDGE - Fincantieri 합작법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및 현대화
- (2) Tawazun - Thales 공중 감시레이더 현지 생산 추진
- (3) Tawazun - RTX - EGA 방산 원자재 '갤륨' 현지 생산
- (4) Tawazun - Raytheon 드론 대응 시스템 현지 생산
- (5) Tawazun - Airbus - EPI 항공기 연료탱크 현지 생산 등

이들 사례는 기술이전 확대, 제조 기반 강화, 핵심 원자재 자립 등의 UAE 방산 전략의 주요 축과 직결됨.

□ 검토 의견

- UAE는 방위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격상시키며, 단순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과 산업 내재화를 통해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안 심화, AI 및 첨단기술 발전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함.
- 한국 기업은 UAE의 국산화 정책 및 기술협력 확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동 연구개발, 현지 생산 거점 확보, 기술이전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 출처 I

- 출처 : Gulf War lessons a catalyst for UAE's military growth, Edge chief says
- 게시일자 : 2025.6.27
- 출처:
<https://www.thenationalnews.com/news/uae/2025/06/27/gulf-war-lessons-a-catalyst-for-uaes-military-growth-edge-chief-says/>

□ 출처 II

- 출처 : EDGE Champions 'Made in the UAE' Defence Capabilities at MIITE 2025
- 게시일자 : 2025.5.20
- 출처:
<https://edgegroup.ae/news/edge-champions-made-uae-defence-capabilities-miite-2025>

□ 출처 III

- 출처 : Abu Dhabi renews its interest in purchasing Israeli "Iron Beam"
- 게시일자 : 2025.6.14.
- 출처: <https://en.ypagency.net/359420>